

로컬리더

군산시, 재산세 과세대상 생성 과세자료 일제 정비

군산시가 2017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재산세 과세대상 생성 및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으로 과세 대상인 주택·건축물·토지 등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연중 체계적인 자료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

정비 대상은 건물·신·중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부동산 소유권 변경자료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정리 및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 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후 감면 부적합 부동산에 대해 과세전환 작업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16년도 재산세 정기분 납부기간에 제기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지난달부터 자료조사를 통한 정확한 근거 확보 후 과세자료 정비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2017년도에는 단계별 주요정비 계획에 따라 ▲2017년 기준 시가표준액 및 세법 개정사항 반영 ▲사적재산상속과 적정여부 일제점검 ▲대형건축물 일제조사 ▲토지와세구분 적정여부 재정비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 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민안전처장관 표창

익산시는 2016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6년 한국 국제승강기엑스포 행사에서 국민안전처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평가에서 훈련계획 및 실행, 참여도, 사고대응력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시는 지난 6월 승강기 간힘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승강기안전관리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익산시, 익산소방서, 승강기안전관리원, 유지관리업체 등 기관별 역할에 따라 사고발생부터, 상황접수, 현장출동, 구조 활동에 이르기까지 실제 모의훈련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승강기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대응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주신 시민여러분, 유관기관과 승강기 안전 관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승강기 뿐 아니라 전기, 가스 등 각종 시설물 사전점검으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 수능 가채점 분석·지원전략설명회

군산시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오는 23일 저녁 7시 군산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2017년 수능 가채점 분석 및 최종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종서 이투스 교육연구소장 등을 초청해 2017년 수능분석 및 2018년 대입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이종서 소장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제주 등지에서 교사 입시 연수강사를 역임했으며, 중앙일보 '공부의 신 프로젝트', TVN '80일만에 서울대 가기' 총책 입자 및 EBS 대학입시가이드, 입시순차법 등 다양한 책으로 활동한 바 있다.

설명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2017학년도 수능 가채점 분석 및 지원전략 수립법, 2017년 정시 지원 전략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어 2부에서는 과학영 효과적 학습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설명회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www.kcn.tv)과 전화(금강방송 1544-5400), 방문(동아저널)접수로 강의 신청을 하면 되고 남은 좌석에 한해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 비응도 종합리조트 부지 매각 신중론 제기

미래 예측 선제적 사업 벌여야

군산시의 비응도 종합리조트 부지 매각과 관련,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기 보단 미래를 예측하는 선제적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군산시는 민간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비응도동 38번지(4만8245㎡ 상업용지)를 매각(감정가액 199억 상당)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군산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보류됐다.

이곳 부지는 지난 2009년 사우디 S&C사가 모두 3000여 원 가량을 투자해 47층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겠다고 군산시와 MOU 체결을 맺은 바 있지만 S&C사의 자금능력 부족과 사업추진 의지 등의 결여 문제로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이후 군산시는 이 부지를 팔기 위해 민간기업자 선정 공모를 실시했으나 참여자가 없어 무산됐고, 2013년 12월에는 사업 명칭을 기존 종합리조트에서 가족콘도형으로 축소했다.

내일 청암산 죽동마을 '사오갯길' 개통식

청암산 습지·군산저수지 연꽃 등 한꺼번에 만끽할 수 있도록 조성

군산시가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해 마을을 거닐며 휴식하고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길을 조성해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체험연계 마을걷는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일 청암산 남쪽자락인 죽동마을 대숲공원에서 '사오갯길' 개통식을 갖는다.

마을걷는길 사업은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2년간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 첫 해에는 죽동마을을 중심으로 청암산을 한바퀴 도는 사오갯길 2.5km와 대숲공원을 조성했다.

올해는 마을공동작업장 농산물판매장을 포함한 농산물 직거래 관련 시설과 전방대 등 편의시설, 마을 스토리 보드, 마을로고, 농촌체험장 등 농가소득과 연계한 테마와 방문객을 위한 테마로 구분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에 개통하는 '사오갯길'은 청암산 등산로가 9km 이상으로 다소 긴 점에 착안해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마을 순환길 2.5km를 개설, 길을 걸으며 청암산 습지와 군산저수지 연꽃 등을 한꺼번에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 길 주변에는 천연염색, 목공예

서 가족콘도형으로 축소했다.

또 2015년 11월에는 사업신청자격에 개인을 추가하고 분할납부가능, 신용평가등급삭제 등의 완화정책을 내놨다.

현재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 2곳의 기업이 비응도 부지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군산시 역시 부지 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관광개발 사업계획이 수립됐는지 여부와 매입자의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은 거치지 않고는 자칫 비응도 일대 부지가 부동산 투기장 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기존에 사우디 S&C사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불발로 그치는 등 피해가 발생시킨 바 있다"며 "계수 확충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만약 매각 후 부자로

이어지지 않아 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의 자금사정 및 사업계획을 꼼꼼히 따져야 부도 등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부동산 투기개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단순 땅을 판다는 개념이 아닌 향후 새마을의 발전과 직결된 만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관심을 갖는 외국계 기업은 당시 S&C와 성격이 다른 경우로 S&C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 입찰보증금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 기업들의 사업계획과 자금확보 방안 등을 꼼꼼히 살펴봐 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기자



체험장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으며, 죽동지 효열문 선제당 사오갯생, 흡소재 등 다양한 마을자원이 방문객들의 궁금증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암산 산행길 중간쯤에 위치한 대숲공원에서는 드림, 색소폰, 기타 등으로 구성된 마을 음악동아리 '뉘엿이갯이'의 상설공연으로 방문객들의 색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판매장인 '죽동상회'에서는 마을과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렴한

한 가격에 판매한다.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죽동상회'는 마을주민 모두가 출차해 배당하고 수익금의 일부는 마을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의 정관을 마련해 농산물 판매와 생산에 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고종원 소장은 "사오갯길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픈한 죽동상회가 마을사업의 새로운 시범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근기자



행복한 100세 인생! 건강식단과 함께 원광대병원 어르신 건강식단 전시회

원광대학교병원이 지역사회 노인기 건강을 위한 건강식단 전시회를 열어 화제다.

최근 원광대병원 외래동 1층 로비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우리 몸의 변화와 그에 맞는 영양상태, 달라지는 영양 요구량을 알리고 노년기 건강을 위한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단 전시회가 열렸다.

'행복한 100세 인생! 건강식단과 함께'라는 테마로 열린 이날 행사는 노인 권장 식단 전시, 상환별 식사요법, 영양보충 음료 전시,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안전

한 밤상꾸미기 등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현상에 맞춰 건강한 식단 실천을 위한 많은 식생활들을 소개 했다.

또한 저염식단 시식회와 영양상담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고 느껴보는 식단전시회로 기획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7%

에서 21%가 되는데 21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세계 최고라고 한다.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2위에 오른다는 전망도 있다.

고령화는 되어 가는데 급속도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맞춰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한 노인 식단에 대한 이모저모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식단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강은주 원광대학교병원 영양팀장은 "환자들에 대한 식단은 관심이 높지만 고령인 노인분들의 건강식단은 남의 일처럼 여긴다"며 "늘어나는 수명에 맞춰 노인 인구의 건강한 식단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환 발생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 지출도 줄이고 개인적으로도 건강 생활 영위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거작전 진행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따라,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경의 강력한 퇴거작전이 진행됐다.

군산해양경찰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우리측 해역에서 아음을 틈타 불법조업을 시도한 중국어선(쌍끌이 어선) 40여척에 대해 퇴거작전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16일 저녁 7시20분경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5km에서 조업을 시도하려다 검문검색에 나선 경비함정과 추격전을 벌이며 진입 3시간 후 10km를 도주하고 한·중어업협정 구역을 벗어났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들은 선명

(船名)이 모두 지워져 있었으며, 양 옆에 철망과 쇠장살을 설치해 출항할 때부터 해양경찰의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중국어선 퇴거작전에서 해경 경비함은 진로를 방해하는 어선에 대해 낙하산 신호탄, 페인트탄 등 총 22발의 진입경비와 물대포를 응사하며 퇴거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김성수 경비구조과장은 "서해 조가머지 등 바닷속이 풍성해지는 이 시기에 어족자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불법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합정 가용세력을 더욱 보강해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중앙지구대, 수능일 수험생 편의제공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에서는, 2017년 수능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7일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하고 익산역산거리를 수험생 태워주는 장소로 선정해 순환차대를 배치하고, 수능일 관련 112신고 접수시 신속출동으로 대처하도록 해 수험생 편의제공에 힘썼다.

이날 112순찰 중 임은상 경사는 아침 6시경 '모현도서관에서 수험표를 습득했다'는 신고를 접하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수험표를 확인하고 수험생의 학교를 파악하기 위해 익산교유지원청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수험표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주소지를 파악한 후 수험생이 살고 있는 자기로 방문하여 어

머니에게 인계하였다

이후에 경우는 아침 8시경 '배산사거리 노상에서 수험장을 가지 못하겠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수험생을 발견하여 112순찰차로 탑승시킨 후 수험장소인 이라남성여고등학교까지 태워주고 함께 수험번호를 확인하여 수험장을 파악한 후 8시22경 입실을 완료시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은 "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수험생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이 맺길 바라며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열정적으로 근무해준 직원과 협조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국가예산 확보 '박차'

익산시는 2017년 국가예산 국회에 결의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17일 국가예산 막바지 점검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광수 이개호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춘식 조배수위원등 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2017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 증액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지난 10월부터 국회를 방문해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43억,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113억,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18억원 증액요청등

협조를 요청했으며 특히 이번 방문은 국회 증액심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예결위위원장과 예결소위원회들을 만나 지역발전 예산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인맥 네트워크 등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며 내년도 국가예산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은 11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독촉고지서 발송

군산시가 미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지진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3월과 9월 연회 부과된다.

이번에 발송된 독촉 고지서는 1만 4910건, 7억5060만 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인터넷뱅킹(가상계좌) 또는 은행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kr)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해 재산조회 후 압류 조치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집중납부기간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스스로 납부토록 독려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환경정책과(454-338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근기자